

경제와 산업

지난 60여 년 한국의 경제 변화는 산업화와 세계화로 정리할 수 있다. 1차 산업 중심에서 2·3차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압축적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다. 특히 정부 주도의 강력한 산업 정책에 힘입어 특정 산업 분야 중심의 수출 지향적 발전 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대내외적인 상황이 변화하면서 구조 조정의 압력이 강해졌고, 인적 자원 개발, 연구 개발 활동과 혁신성 증대 등의 노력이 전 산업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정부에서 민간 기업 중심으로 발전의 후동력이 옮겨졌고, 제별 대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점점 커졌다.

먼저, 국가별 GDP 순위 변화를 통해 한국의 경제적 위상 변화를 살펴보면, 1960년 31위, 1965년 41위로 하락했다가 1970년 32위, 1975년 30위로 상승세가 시작되었다. 1980년 28위, 1985년 18위, 1990년 15위, 1995년 11위로 성장하다가 이후 12~15위권에서 정체되어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1960년대 초까지 한국은 농업이 주된 경제 활동인 1차 산업 중심의 후진국형 경제 체제와 산업 구조를 보였다. 농림·어업 분야가 국내 총생산의 40% 이상, 취업자의 60% 이상을 차지하였고, 반

면 제조업은 국내 총생산의 20% 미만, 취업자의 10% 미만을 나타냈다. 이는 일제 식민 지배 당시 전쟁 수행 등에 필요한 제조업의 주된 부분이 북한 지역에 배치되어 있었고, 1950년대 초반 6·25 전쟁, 남북 분단을 겪으면서 제조업이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1950년대에는 전후 복구 작업 등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를 거쳤고, 산업은 수입 대체 산업 중심의 소극적 정책에 그쳤다.

1960년대 초반부터 한국은 산업화를 통한 본격적인 경제 성장에 돌입하는데, 이때부터 제조업이 한국 경제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1961년에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을 국정의 중심 과제로 삼고, 1962년부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수출 주도형 공업화와 경제 성장으로 전략을 전환하면서 정부 주도형 산업 발전 정책을 추진하였다. 1960년대에는 경공업 위주의 수출 주도형 전략을 추진하여 섬유, 제철, 합판, 가발, 신발 등이 주요 수출품이었다. 1970년대 들어서부터는 정부 주도의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력 산업이 변화하였다. 주요 수출 상품 변화를 살펴보면, 1960년대 초반에는 철광석 등 광물과 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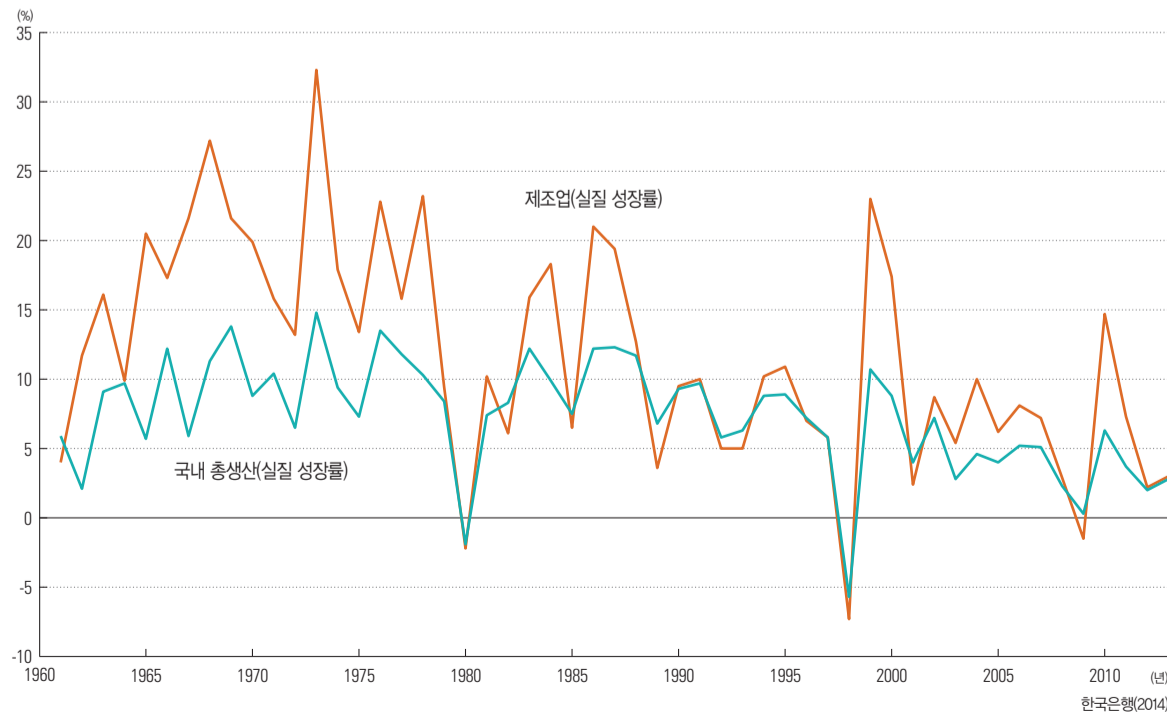
가 높은 순위에 있었는데, 1970~1980년대까지 섬유 및 의류, 신발 등 경공업 제품이 두각을 나타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반도체, 컴퓨터 등 첨단 기술 산업 제품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등 변화를 보였다.

국내 총생산의 실질 성장률 변화를 통해 경제 성장 추세를 살펴보면, 1960년대 이전 4% 미만에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60년대(1961~1970) 8.4%, 1970년대(1971~1980) 9.0%, 1980년대(1981~1990) 9.7%로 10% 안팎의 높은 성장률이 상당 기간 유지되었다. 특히 제조업의 성장률을 살펴보면, 변화의 정도는 있으나, 1960년대 16.8%, 1970년대 15.8%, 1980년대 12.2%로 10%를 훨씬 넘는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며 성장해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60년대 초반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 고도의 성장이 이루어졌다. 이후 정체가 들어서면서 1990년대(1991~2000) 6.5%로 떨어졌고 2000년대(2001~2010)에는 4%를 겨우 넘는 수준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특히 1979년 석유 파동으로 인한 위기, 1997년 대내외적인 요인들로 인한 외환 위기,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에는 제조업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크게 하락하였다. 그러나 성공적인 경제 구조 조정을 통해 빠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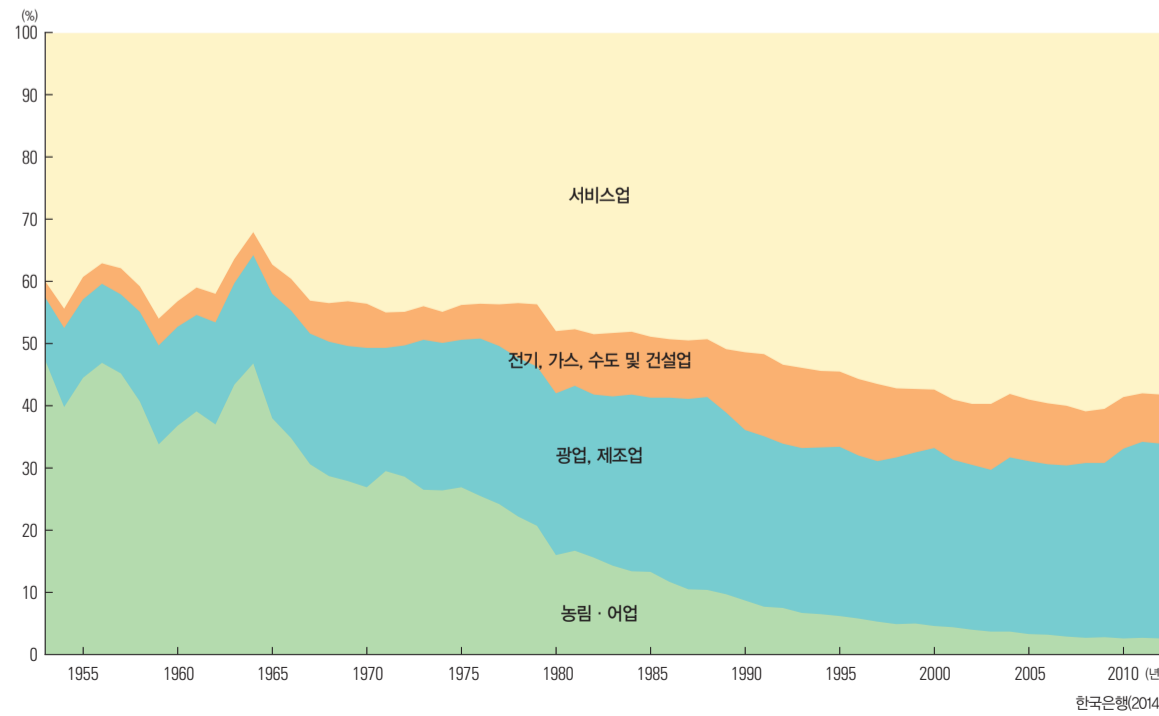
회복하여 성장을 이어오고 있으나 성장세는 둔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산업 부문별 부가 가치 비중 변화를 통해 산업 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농림·어업은 1950년대 40% 이상에서 2000년대 3%대로 하락하였고, 제조업은 같은 시기 12.0%에서 27.4%로 증가, 서비스업은 41.1%에서 59.5%로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의 산업 구조가 1차 산업 중심에서 2·3차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개편되었음을 보여 준다. 특히 제조업 구조에 있어서 1950~1970년대까지는 경공업이 산업 성장을 주도하다가 1970년대부터 중화학 공업이 급성장하면서 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산업화와 세계화는 국토 공간에 투영되어 산업과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경부축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60년대부터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으로 특정 지역 중심의 거점 개발 방식이 이루어졌고, 수출 지향적인 산업 발달로 인해 수출입에 용이한 남동 해안 지역 도시들이 공업 도시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불균형적 발전에 대한 대안으로 수도권 공장 규제, 산업 시설 지방 이전, 지역 산업 및 클러스터 육성 등 균형 발전 정책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국내 총생산 및 제조업 실질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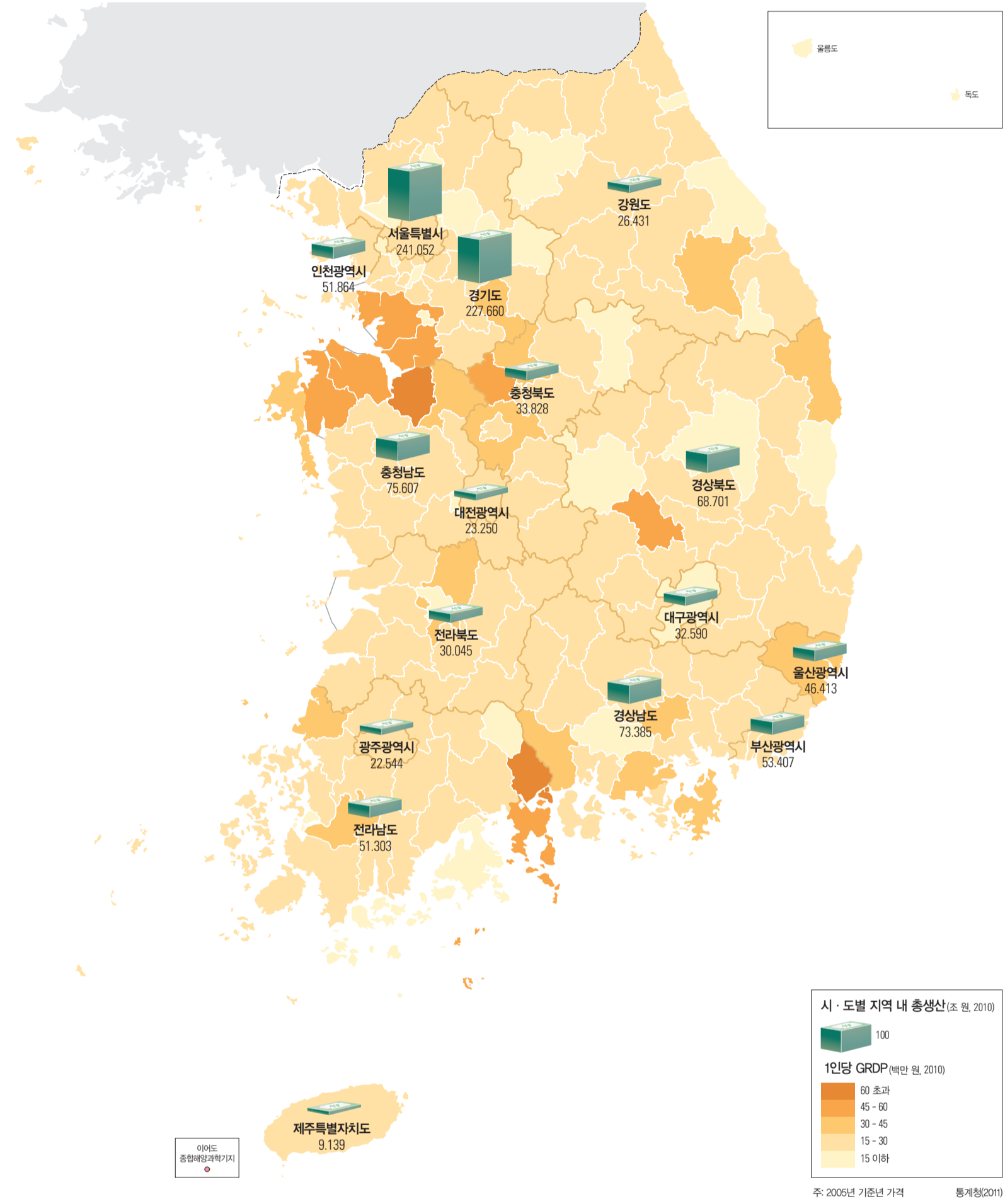


산업별 부가 가치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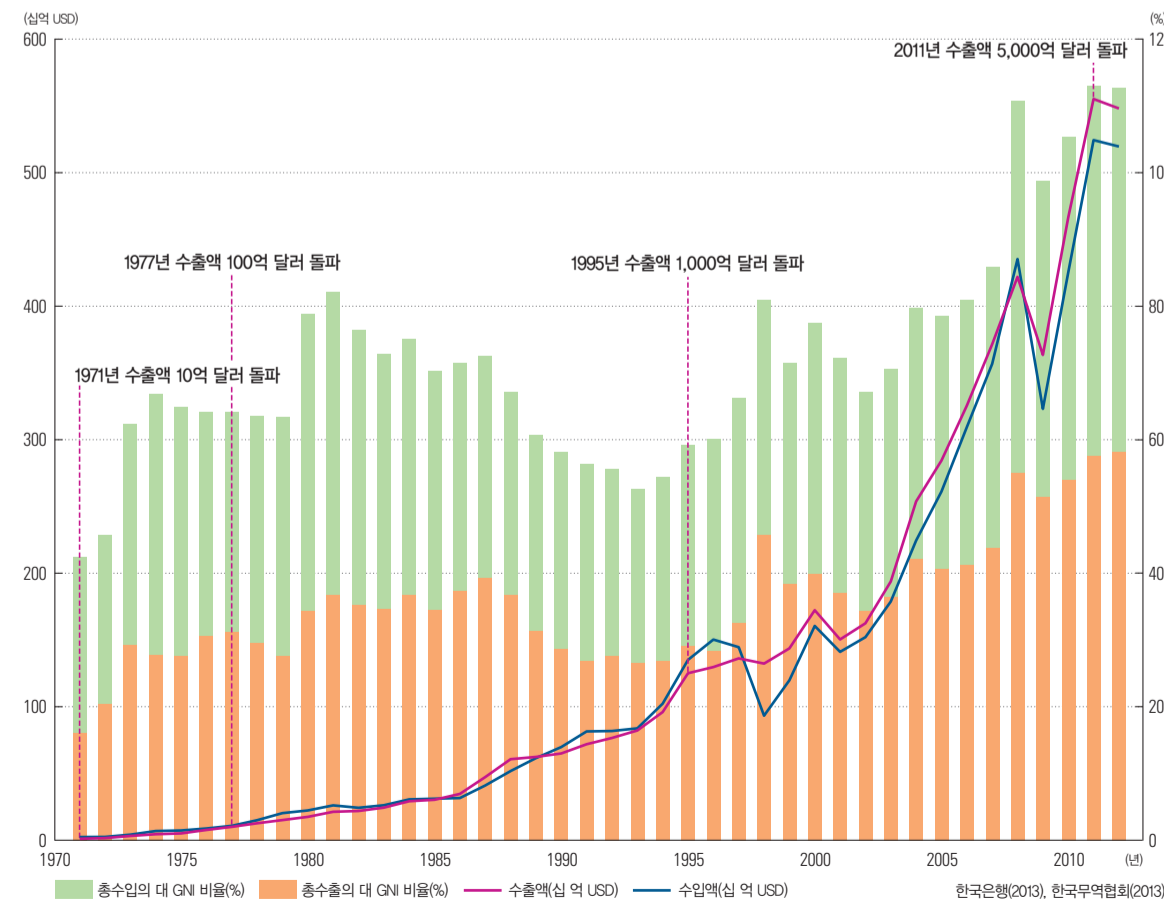


한국의 경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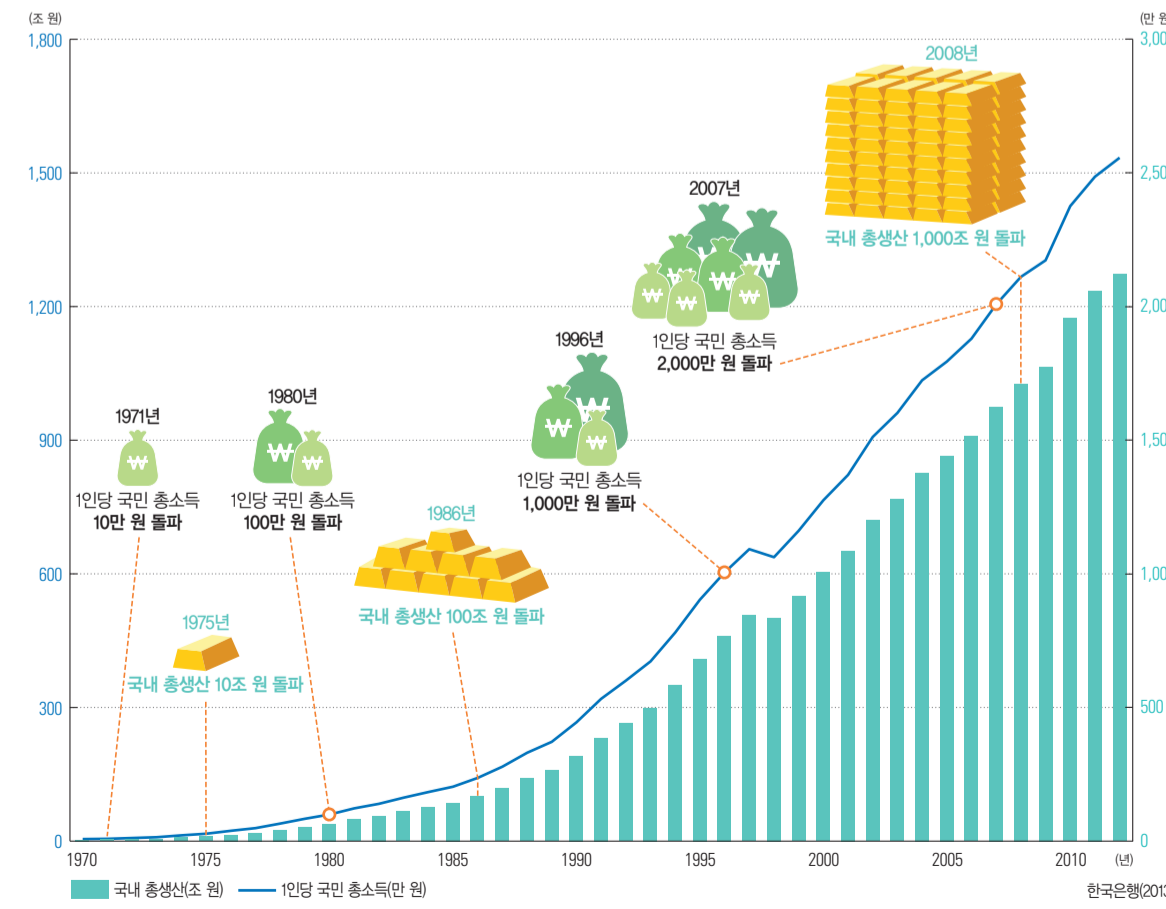
지역 내 총생산



수출과 수입 변화



국내 총생산과 1인당 국민 총소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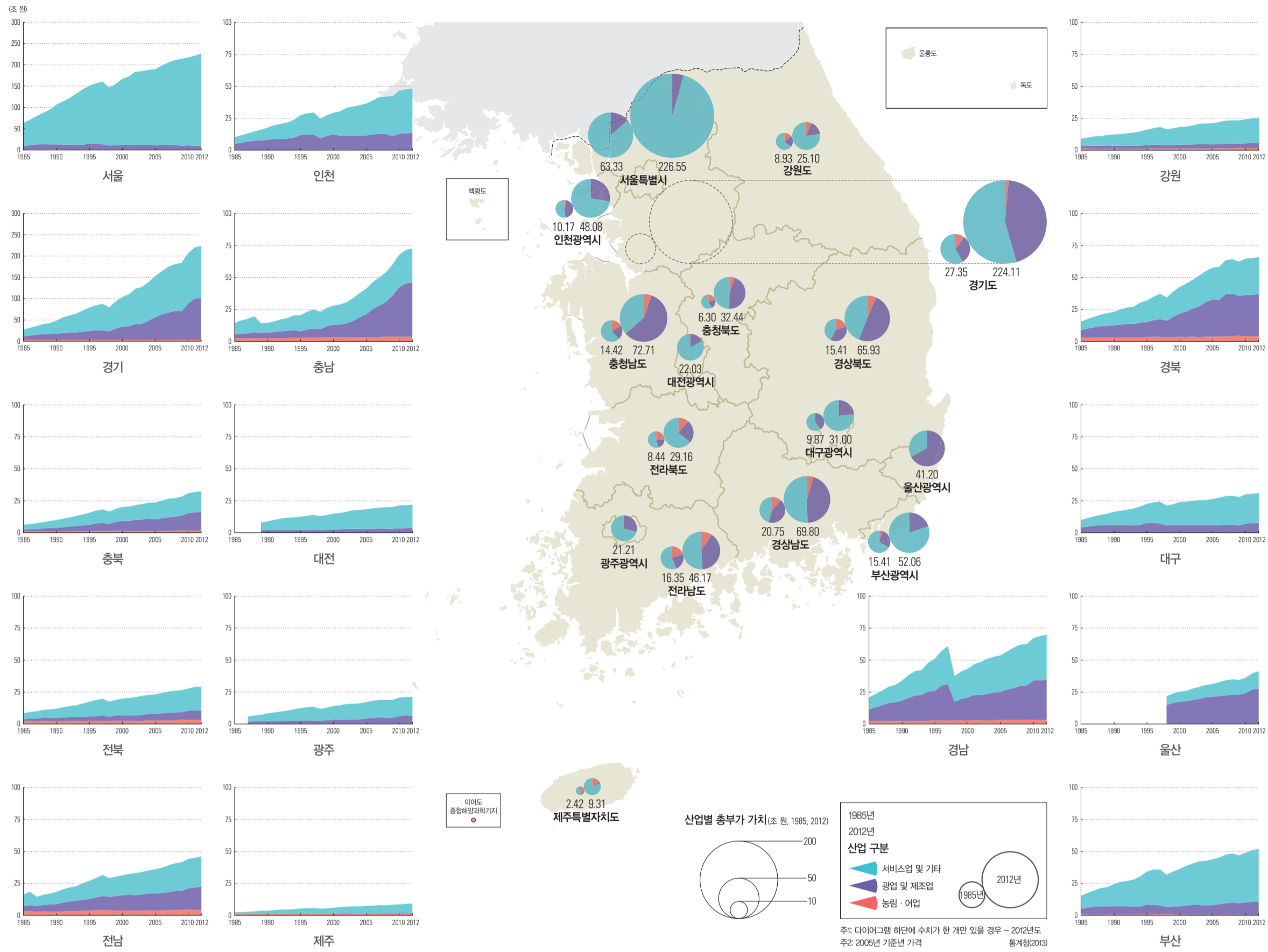


한국의 경제 성장과 현황을 보여줄 수 있는 지역별 경제 지표 중 대표적인 것이 지역 내 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과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다. 지역 내 총생산은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지역 내에서 새로이 창출된 최종 생산물 가치의 합, 즉 총부가 가치를 의미한다. 지역 내 총생산을 통해 각 지역의 경제 규모, 생산 수준, 산업 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지역의 범위를 국가 전체로 확장하면 국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이 되지만, 추계시 이용하는 자료와 방법의 차이가 있어서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국민 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은 가계, 기업, 정부 등 한 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에 생산한 총부가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국내 총생산이 한 국가의 생산 활동을 측정하는 생산 지표인 반면에, 국민 총소득은 국민의 후생 수준을 측정하는 소득 지표이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명목 기준)은 2013년 1조 1,975억 달러를 기록하여 세계 15위를 차지하였고, 구매력 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으로는 12위를 차지하였다. 1960년 31위, 1970년 32위, 1980년 28위를 기록한 이후 1980년대 급격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 1985년 18위, 1990년 15위로 도약하였다. 그러나 이후 11~15위권에서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국내 총생산의 증가를 살펴보면, 1975년 10조 원을 돌파하였고, 11년만인 1986년에 10배인 100조 원을 돌파하였다. 10조 원 돌파 33년만인 2008년에 100배인 1,000조 원을 돌파하여 압축적 경제 성장을 보여 주고 있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의 충격으로 1998년 한해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971년 10만 원이었던 것이 9년만인 1980년 100만 원을 돌파하였고, 이후 16년만인 1996년에 1,000만 원을 넘었다. 2007년에는 1인당 국민 총소득 2,000만 원을 돌파하여 2013년 현재 2,500만 원 이상까지 상승하였다. 이러한 경제 성장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1990년대부터 추진되어 온 수출 지향 산업 정책에 따른 수출 산업의 발달이다. 수출액과 수입액 변화를 살펴보면 몇 번의 경제 위기는 있었으나 꾸준히 성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1971년 수출액 10억 달러 돌파 이래 6년만에 10배인 10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24년만인 1995년 1,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급성장을 이룩하였다. 2011년에는 수출액 5,000억 달러를 넘어서기도 하였다.

산업 구조와 공간

지역 내 총부가 가치의 산업별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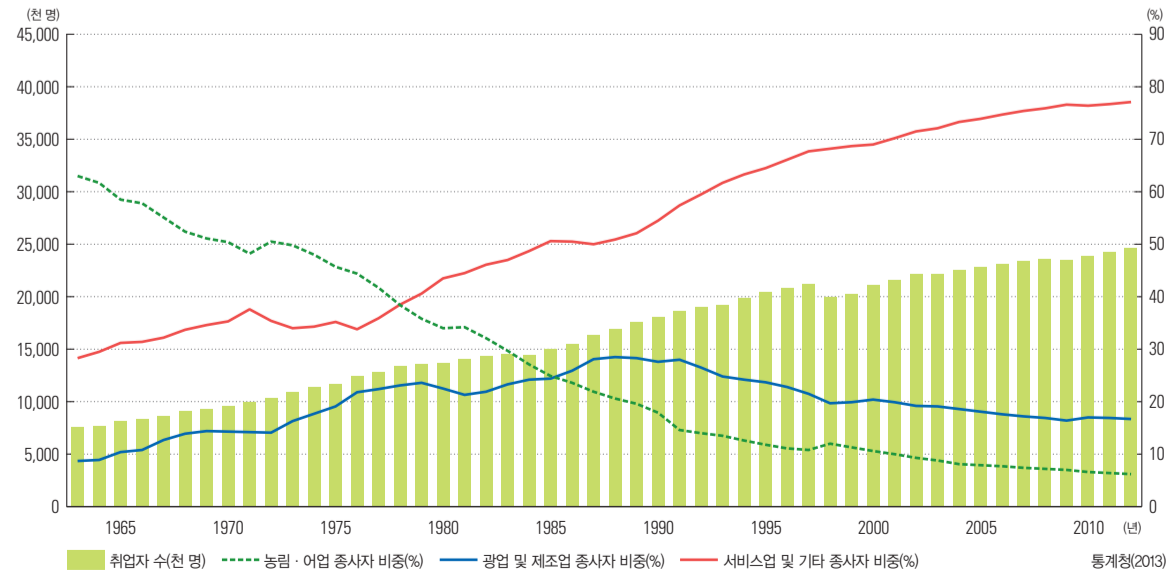


산업 구조 변화는 일반적으로 농업·어업, 광업 및 제조업, 서비스업 및 기타의 비중 변화를 통해 살펴본다. 여러 가지 지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부문별 취업자 수 변화를 통해 살펴보면, 1960년대 이래 농업·어업의 지속적인 감소, 광업 및 제조업의 증가와 감소, 서비스업 및 기타 부문의 지속적 증가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농업·어업 비중 감소와 제조업 비중 증가의 산업 구조 변화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특징적인 것은 이러한 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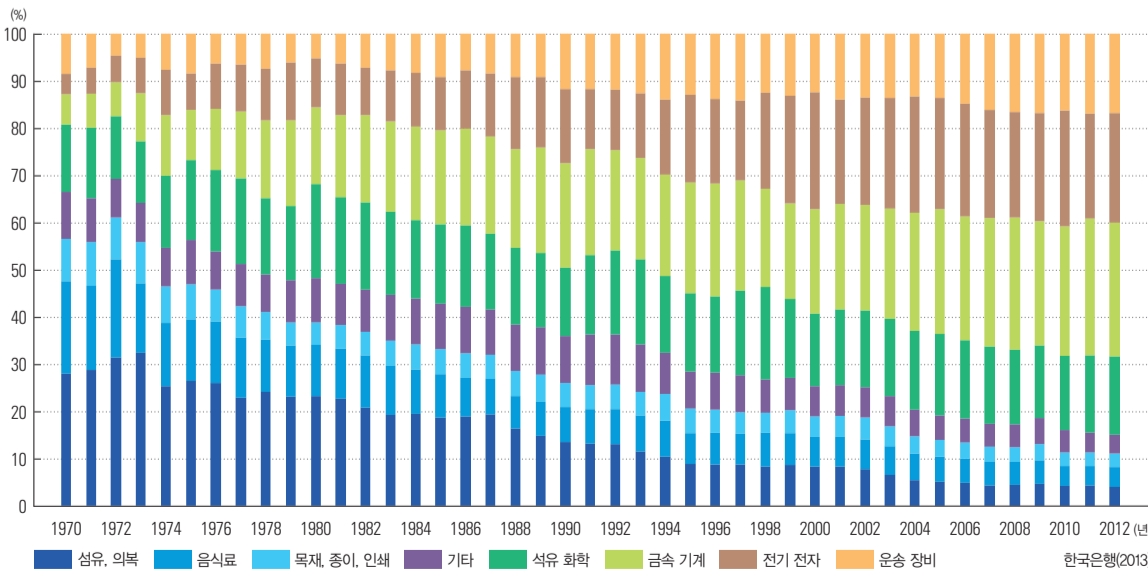
행되었다는 점이다. 선진국들이 몇백 년 동안 겪은 변화를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산업화를 시작한지 30여 년의 기간 동안 겪었던 것이다. 이에 한국의 산업화는 압축 성장을 통해 특징을 지니고 있다. 1985년과 2012년의 지역 내 총부가 가치 변화를 통해서 시·도별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27년 동안 총부가 가치의 성장을 볼 수 있다. 특히 경기도의 급성장을 파악할 수 있는데, 1985년 서울 63조 원, 경기도 27조 원으로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이 2012

년 226조 원, 224조 원으로 거의 비슷한 정도로 상승했다. 모든 지역에서 농업·어업의 비중 감소가 나타났고, 광역시는 제조업 비중 감소와 서비스업 및 기타 부문의 비중 증가가 특징적이다.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제조업 비중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수도권 남부에서 충청도로 이어지는 제조업 성장을 보여 주고 있다. 서울은 서비스업 및 기타 부문이 95.5%, 제주도는 81.3%를 보이면서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 변화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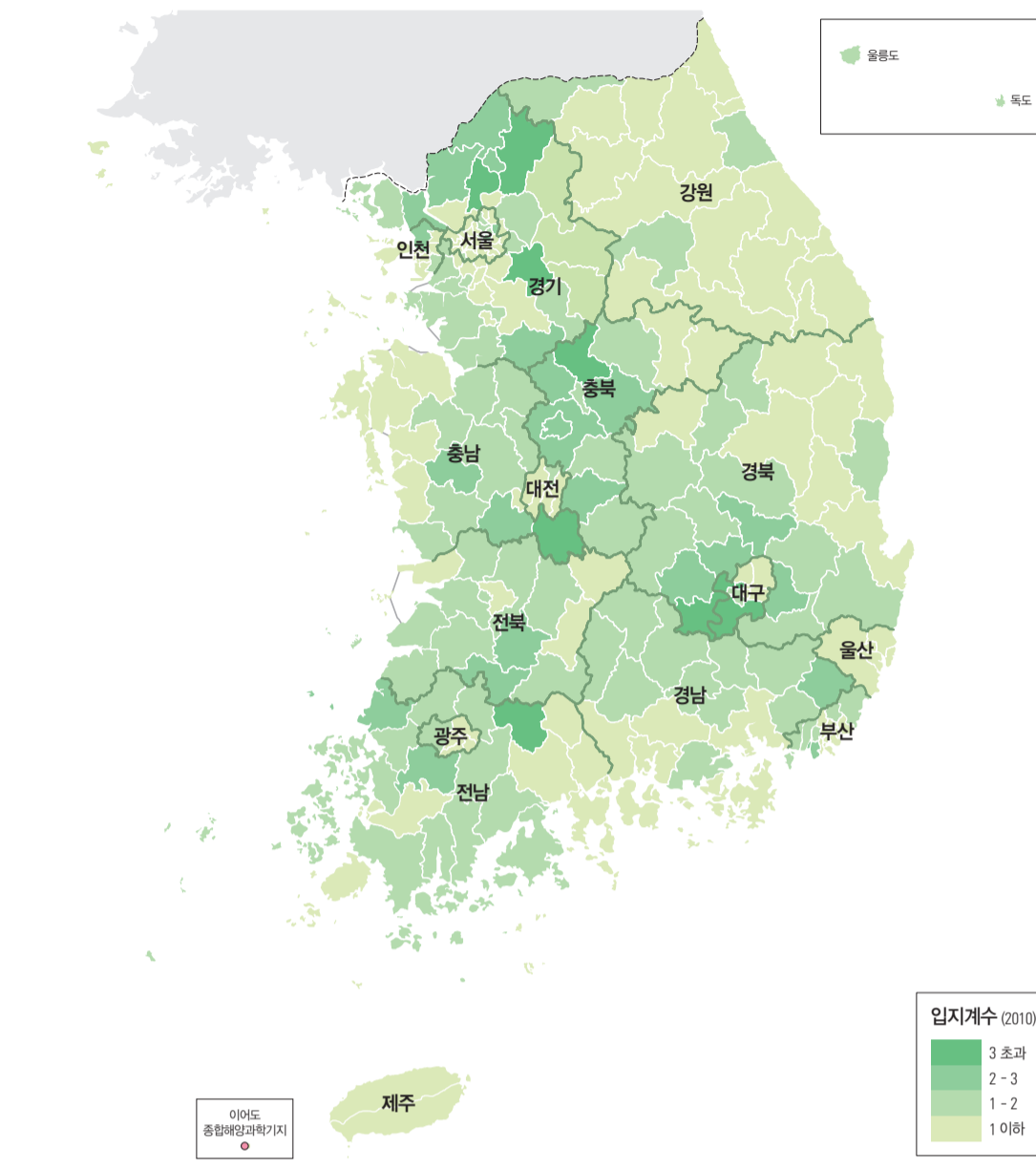
산업 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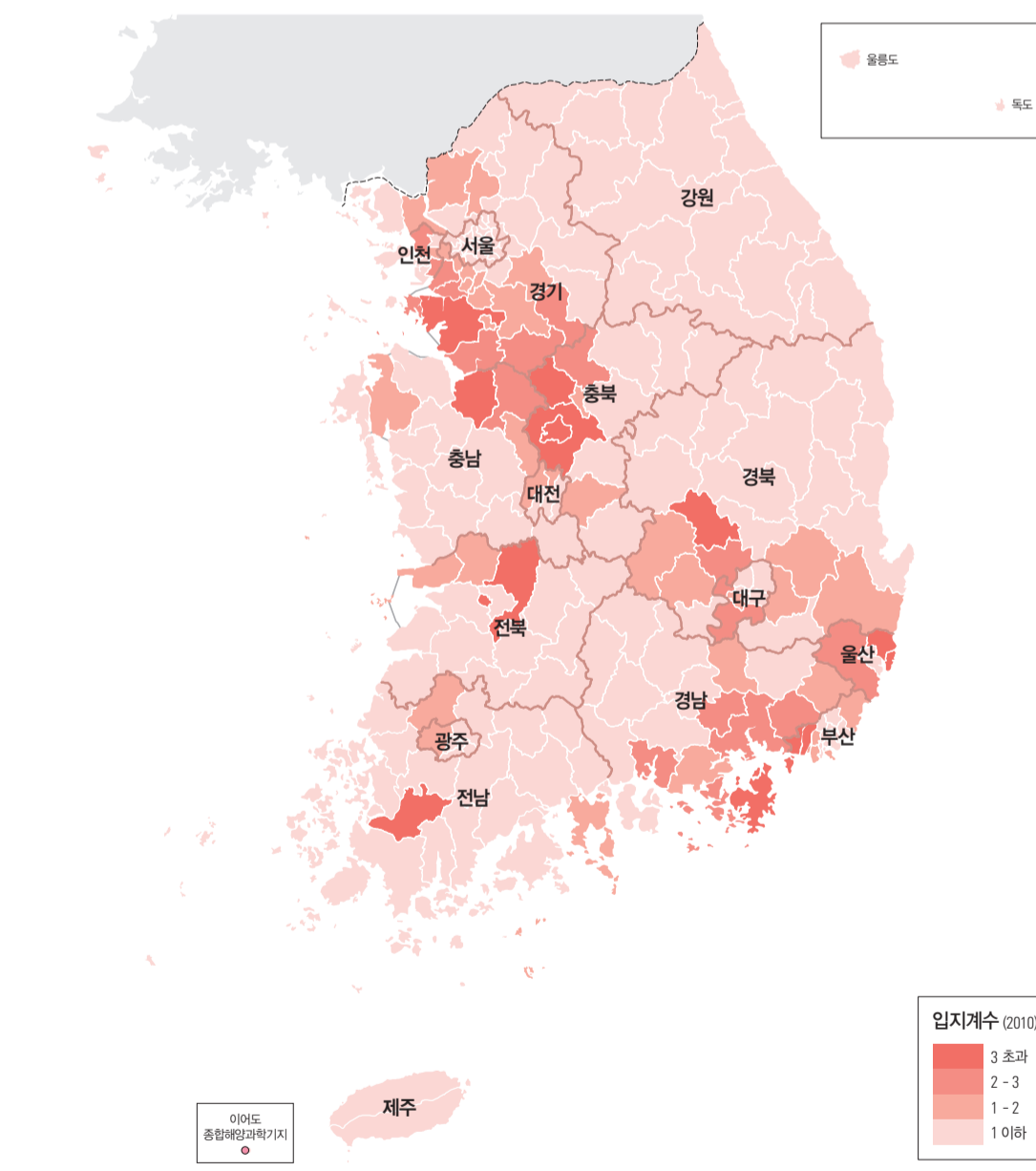
제조업 구조의 변화



경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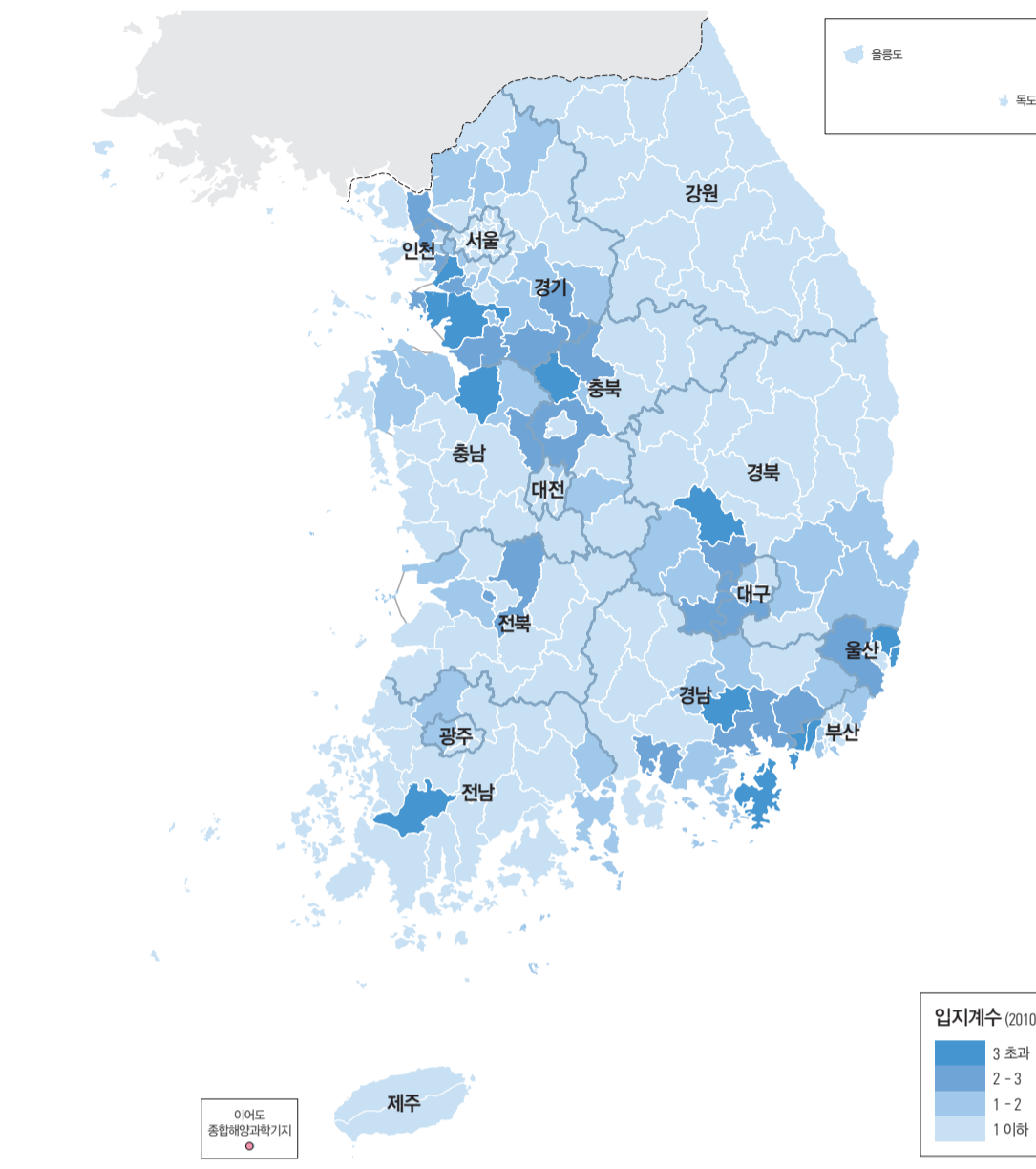
첨단 기술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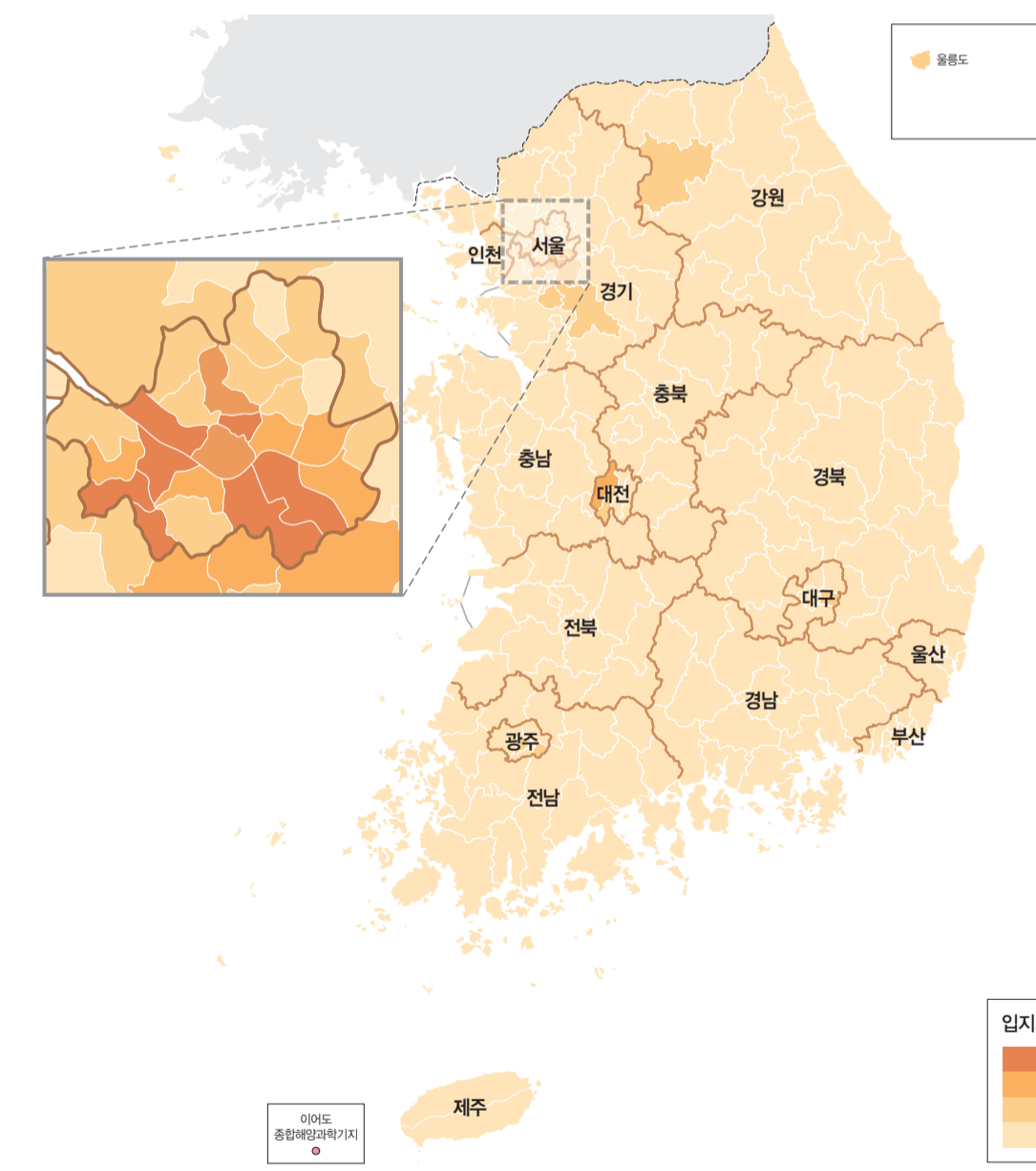
입지개수는 지역의 산업 특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수 중 하나로, 특정 산업의 전국 점유율에 대한 지역 점유율의 비중(중사자의 수 기준)을 나타낸다. 대개 입지개수가 1 이상이면 해당 산업이 특화된 것으로 본다. 제조업은 크게 경공업과 중화학 공업으로 구분되는데, 경

공업은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 및 인쇄,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가구, 기타 제품 제조업이 포함된다. 중화학 공업은 펄프 및 종이 제품, 석유 및 화학 제품, 의약품, 비금속 광물, 1차 금속 및 금속 가공 제품, 전기 전자, 기계, 자동차 및 운송 장비 제조업 등이 포함된다. 첨단 기술 산업과

중화학 공업



지식 집약 사업 서비스



지식 집약 서비스는 OECD의 첨단 기술 제조업 정의와 지식 집약적 시장 서비스업의 정의를 따라 구분하였다. 첨단 기술 산업은 화학 제품, 의약품, 전기 전자, 정밀 기기, 자동차 및 운송 장비 제조업 등이 포함되고, 지식 집약 서비스는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

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의미한다. 산업은 전반적으로 정부축을 중심으로 발달했는데, 특히 중화학 공업과 첨단 기술 산업은 수도권 남부와 남동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도가 뚜렷이 나타난다. 한편 지식 집약 서비스는 서울 강남 지역의 집중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기업 구조와 혁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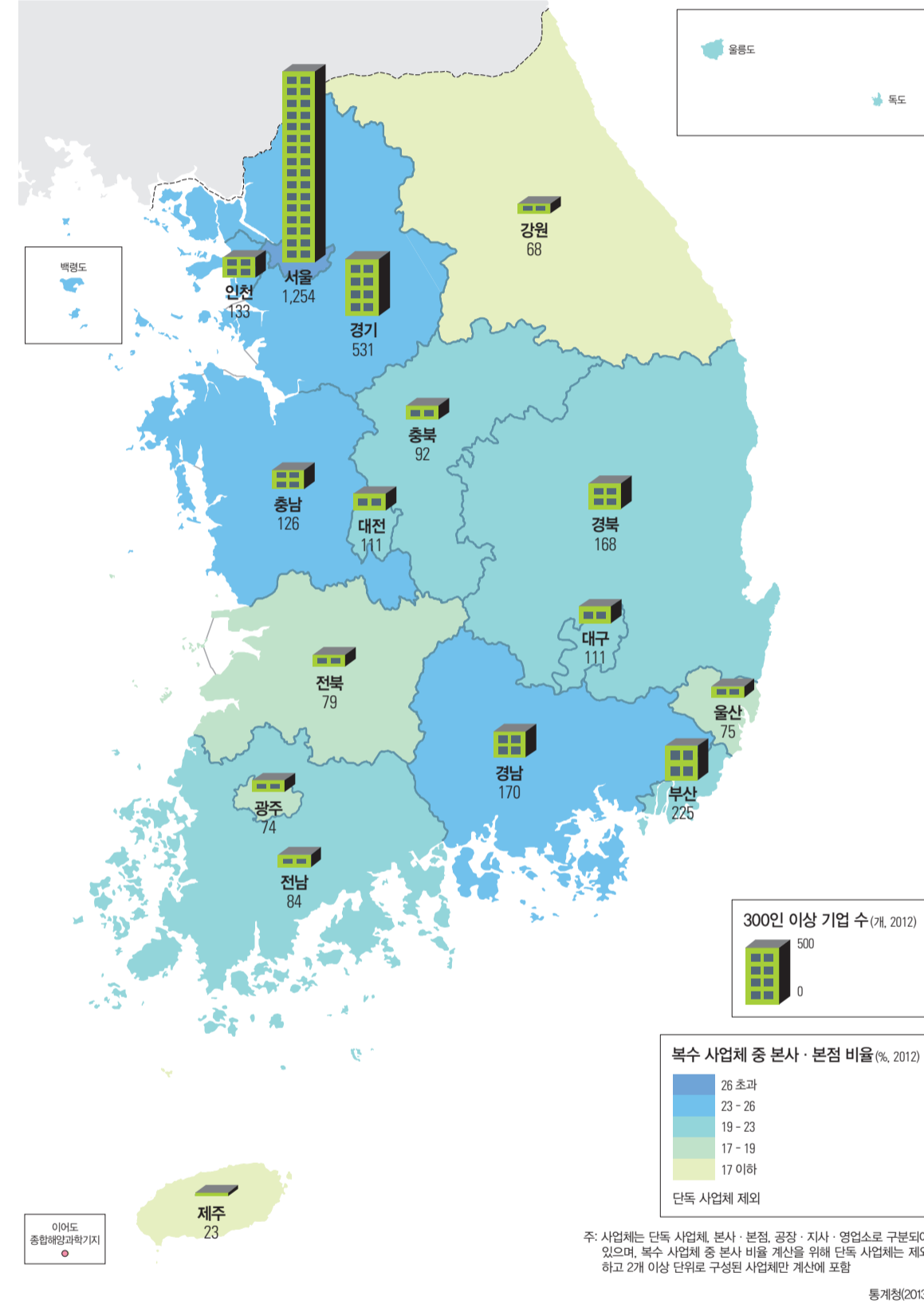
한국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 수출 산업 분야는 대기업이 큰 역할을 담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각화를 통해 개별 기업으로 성장했다. 한국 경제는 대기업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2000년대 들어 더욱 심화되었다. 상위 100대 기업이 전체 출하액의 약 50%를 차지하는데, 특히 상위 50대 기업이 43%를 차지할 정도로 대기업 의존도가 높다. 전 업종 500인 이상 사업체 수의 57.3%가 수도권에 입지해 있는 반면, 광업·제조업 500인 이상 사업체의 22.3%만이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다. 통계

상 사업체 수가 분사, 공장, 영업소 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대규모 공장의 지방 이전과 비수도권 입지가 그러한 차이의 주된 원인으로 해석된다. 분사 입지만 살펴보면, 매출액 기준 상위 1,000개 상장 기업 분사 중 서울에 529개를 포함하여 수도권에 712개사가 있고, 비수도권에 288개사가 있다. 주요 대기업 본사의 절반 이상이 서울에 있고, 수도권에 70%가 넘게 입지하고 있어서 관련 통계 기능의 수도권 집중을 보여 준다. 한국의 산업은 1970년대 초까지 경공업 중심의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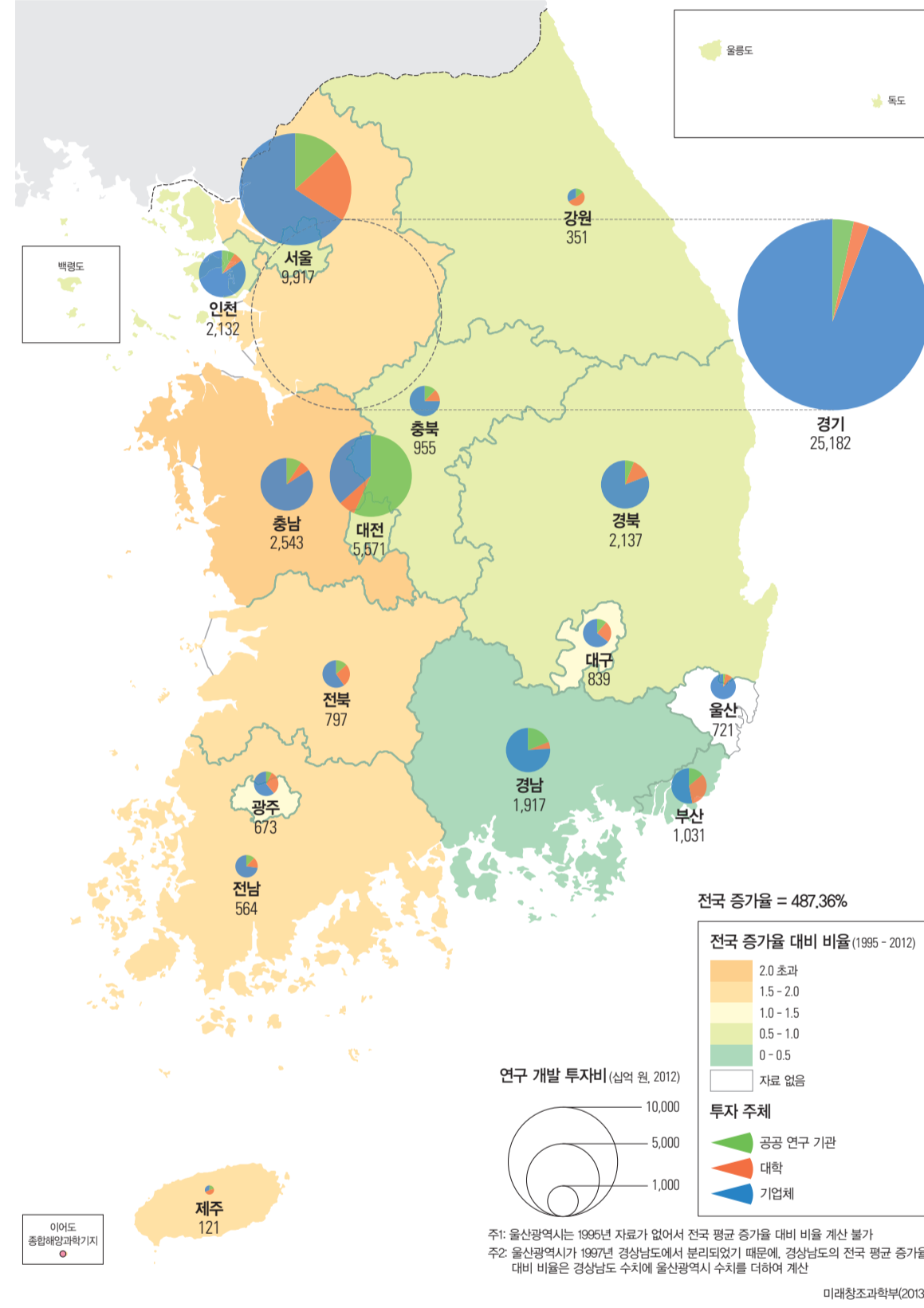
주도형 산업 구조를 유지하였고,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중화학 공업 중심의 투자 주도형 산업 구조로 전환하였다. 1980년대 이후에는 기술 개발 투자와 고급 기술 인력 양성을 통한 혁신 주도형 산업 구조로 변모하였다. 연구 개발 투자 추이를 보면 1980년대 초반까지 GDP 대비 1% 미만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1년 4%가 넘었다. 이것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성장세가 빠른 것이다. 주제별 연구 개발 투자비는 1970년대까지 공공 연구 기관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것이 1980년

대부터 기업체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1980년대 말부터 기업체 비중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연구 개발 투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45.4%, 서울이 17.9%를 차지하여 수도권이 6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전은 주요 연구 기관이 집적해 있어서 공공 연구 기관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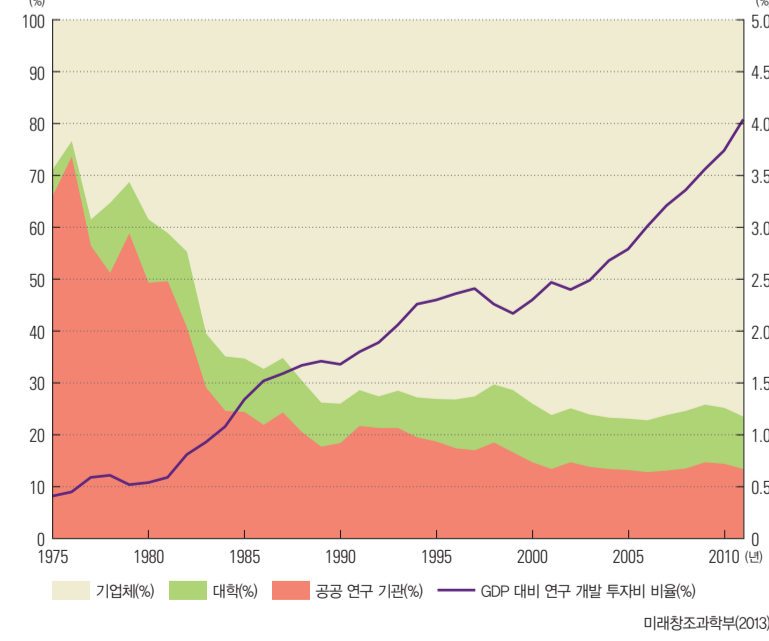
기업 조직 및 규모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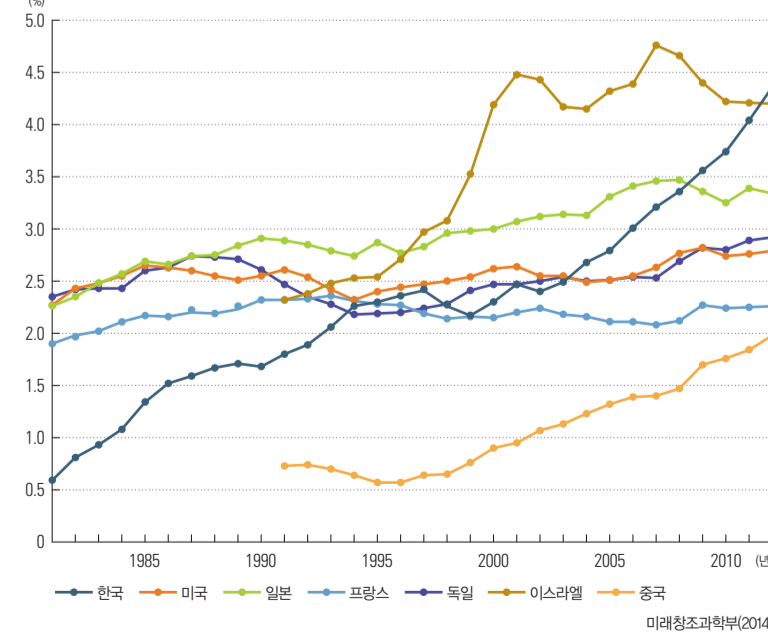
시·도별 연구 개발 투자 현황



주제별 연구 개발비 비중 변화



주요 국가별 연구 개발비 비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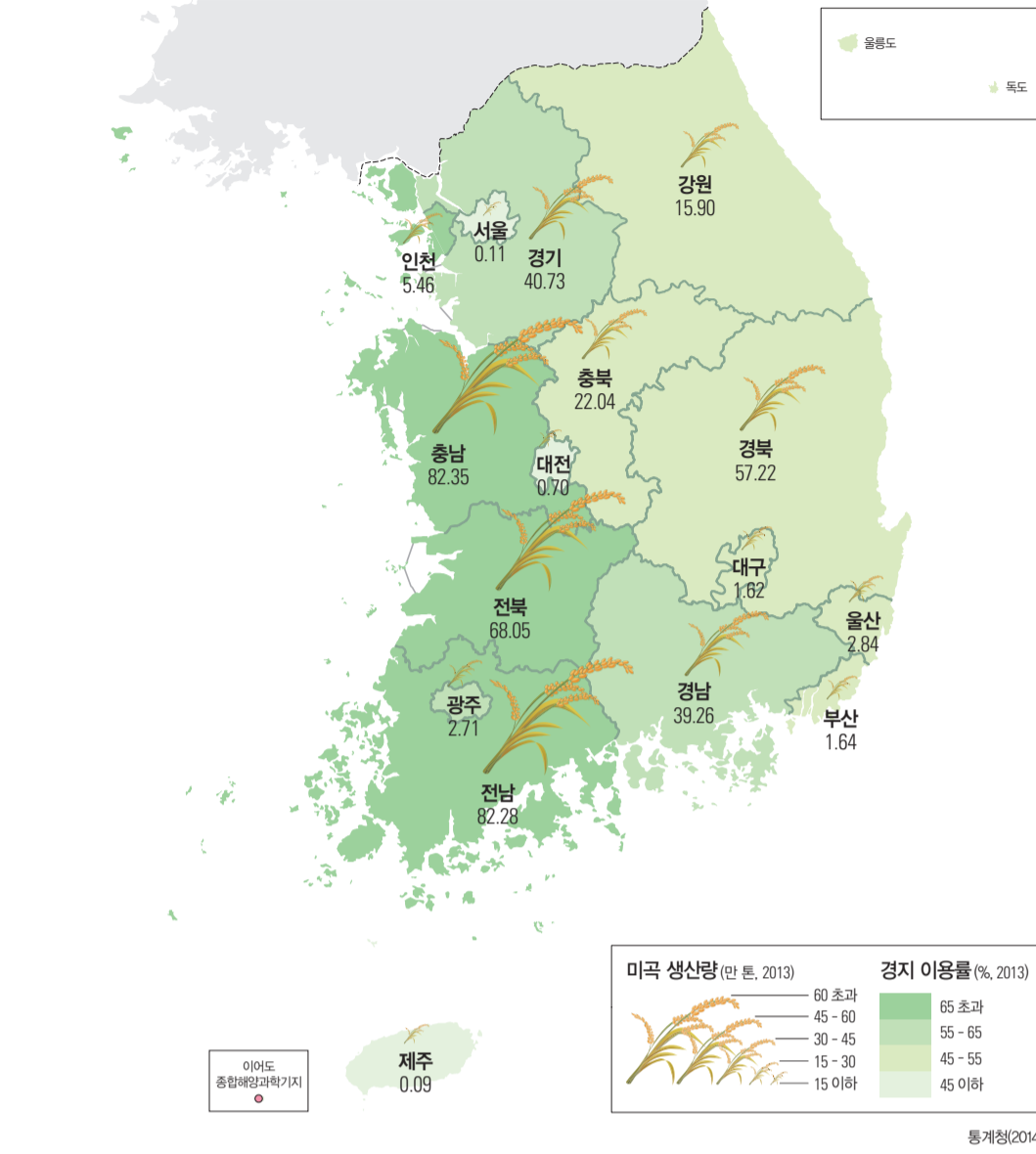


상위 100대 기업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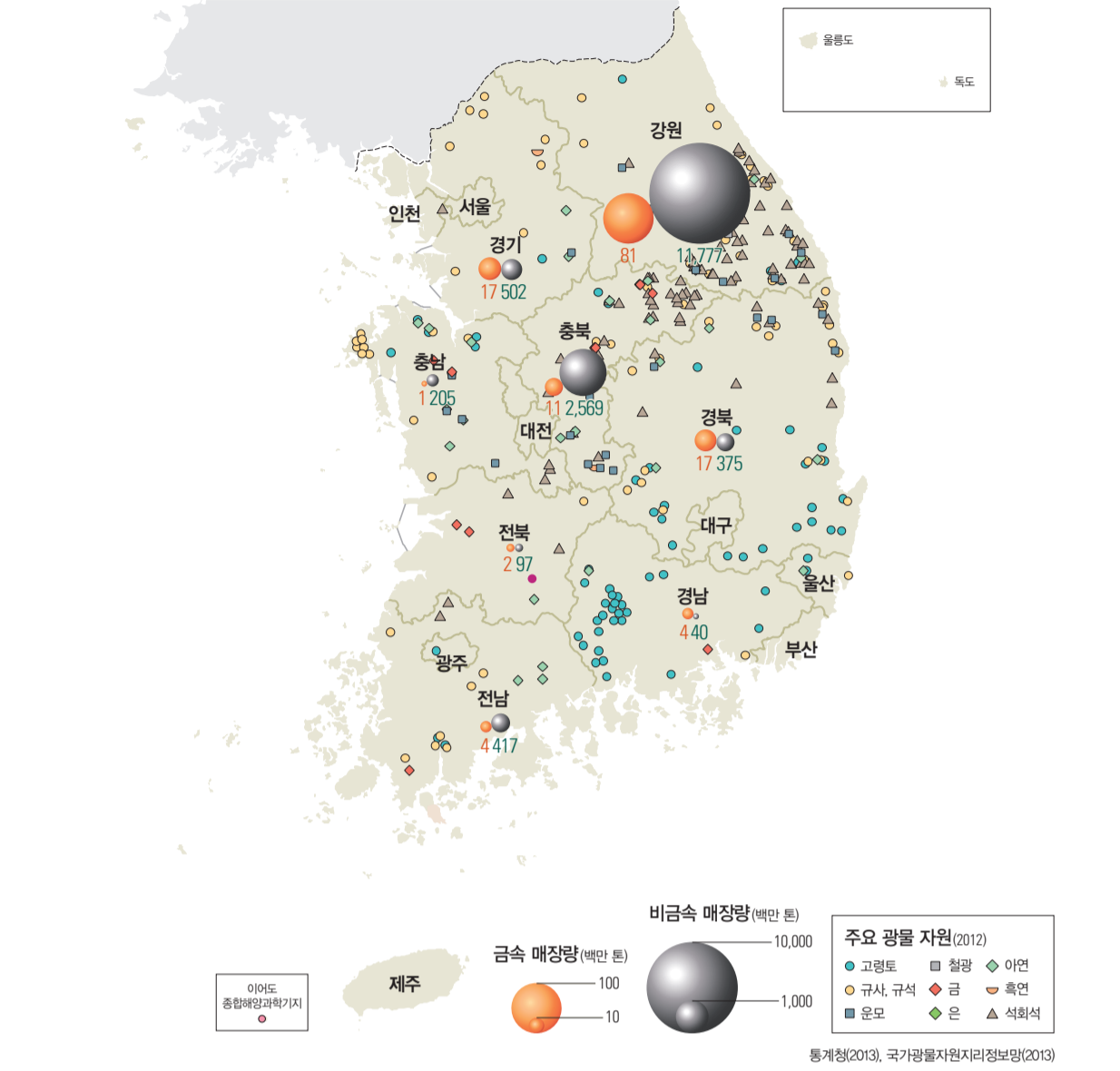


자원 분포와 에너지 소비

식량 자원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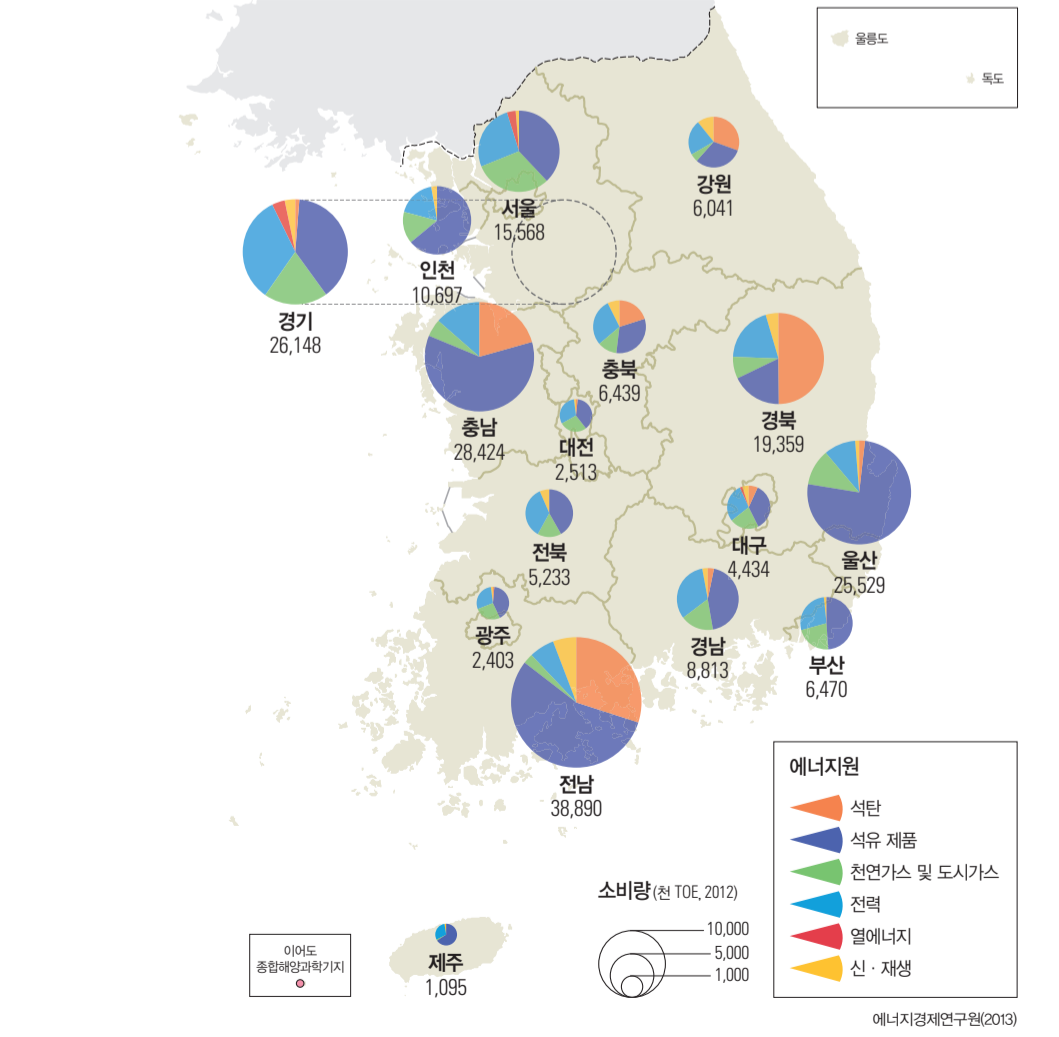
광물 자원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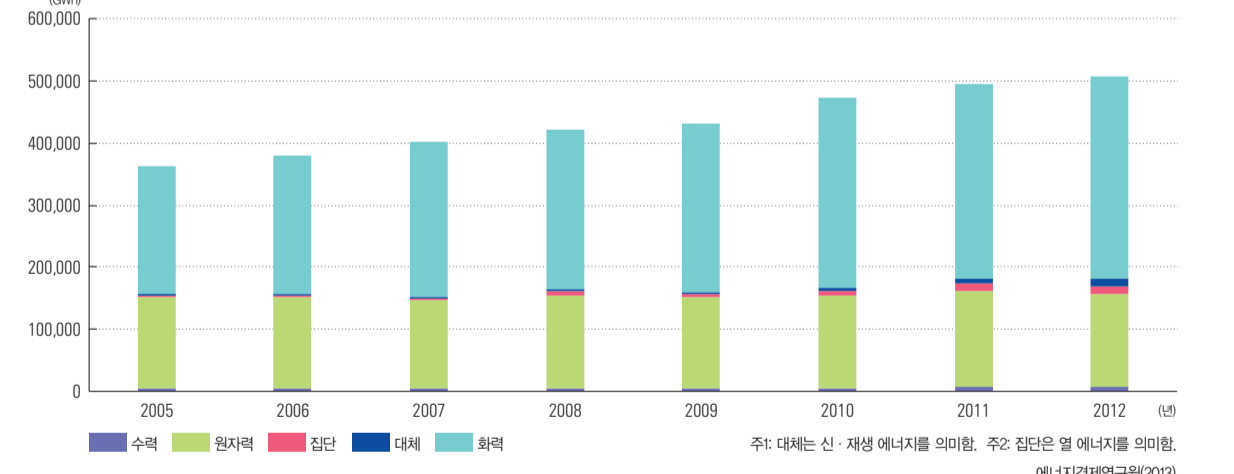
여러 가지 자원 중 식량 자원과 광물 자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식량 자원 중 농산물의 산출 구조를 농업 총생산액으로 살펴보면, 경종 작물(곡류, 두류, 서류, 채소류, 과일류 등)과 축산의 생산 비율은 1950년대 초 9:1이었던 것이 점차 축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7:3 정도의 비율로 변화하였다. 특히 농산물 중 미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0년대 50% 이상에서 점차 감소하여 30% 이하로 줄어들었다. 반면 채소류와 과일류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히 미곡의 생산은 전체 농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전라남·북도, 충청남도의 생산량이 많다. 농산물의 전체 제배 면적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개별 작물의 재배 면적도 공통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국에서 발견되는 광물은 약 300종이고, 이 중 유용한 광물은 140여 종에 이른다. 그렇지만 광물 자원으로 채굴되는 것은 20종 정도이며, 매장량이 풍부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지하자원으로 산출되는 광물은 금속 광물과 비금속 광물로 구분된다. 금속 광물 중 철, 망간, 중석, 몰리브덴, 흑연, 아연 등은 강원도 태백산 광화대(강원도 삼척시, 태백시, 양양군 일원)에, 동은 태백산 광화대 및 경상남·북도 일원에, 금·은은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으나 부존량이 많지 않아 대부분 수입에 의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금속 광물의 대표적인 자원은 석회석, 고령토, 석탄 등인데, 석회석은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지에서 채굴되며 채굴량은 시멘트 공업의 성장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석회석, 규석 등은 한국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국내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석탄 자원은 무연탄, 갈탄, 토탄이 있으나 갈탄과 토탄은 부존 상태가 불량하고 경제성이 희박하여 개발되지 않고 있다. 무연탄은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및 경기도 일원에 분포해 있지만, 절반 이상이 태백산 지역의 탄전에 매장되어 있다. 실생활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은 석유, 석탄, 가스 등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로 태양력, 수력, 풍력과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구분된다. 석탄이나 수력과 같은 에너지가 국내에서 생산되기는 하지만 미미한 수준이며, 95% 이상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 총수입액 중 에너지 수입액이 1/4 정도에 달하고, 수입 에너지에서 원유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에서는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순으로 나타나고, 석탄과 석유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량을 살펴보면 화력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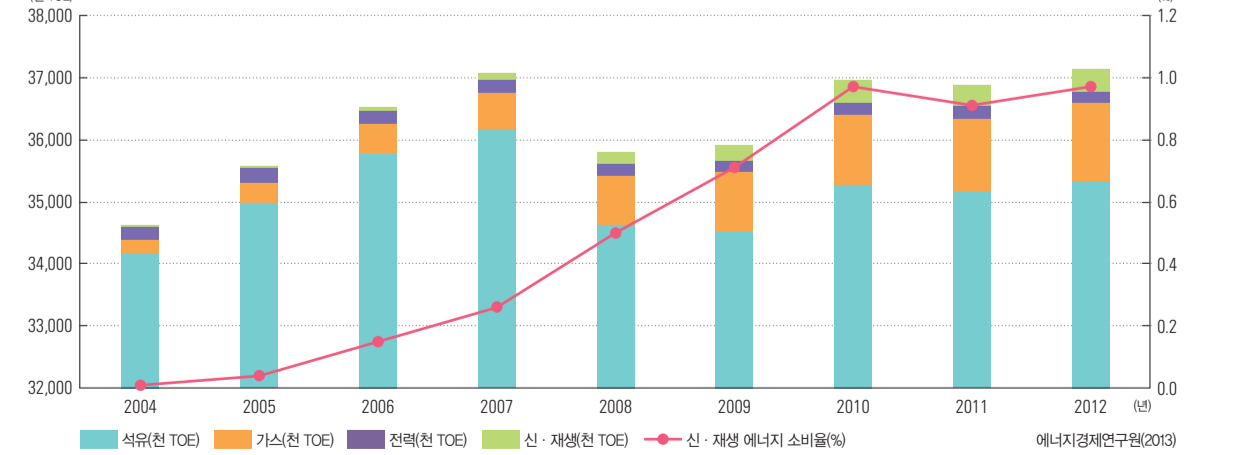
에너지원별 소비량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량



교통 부문 에너지 소비량



국민 경제 활동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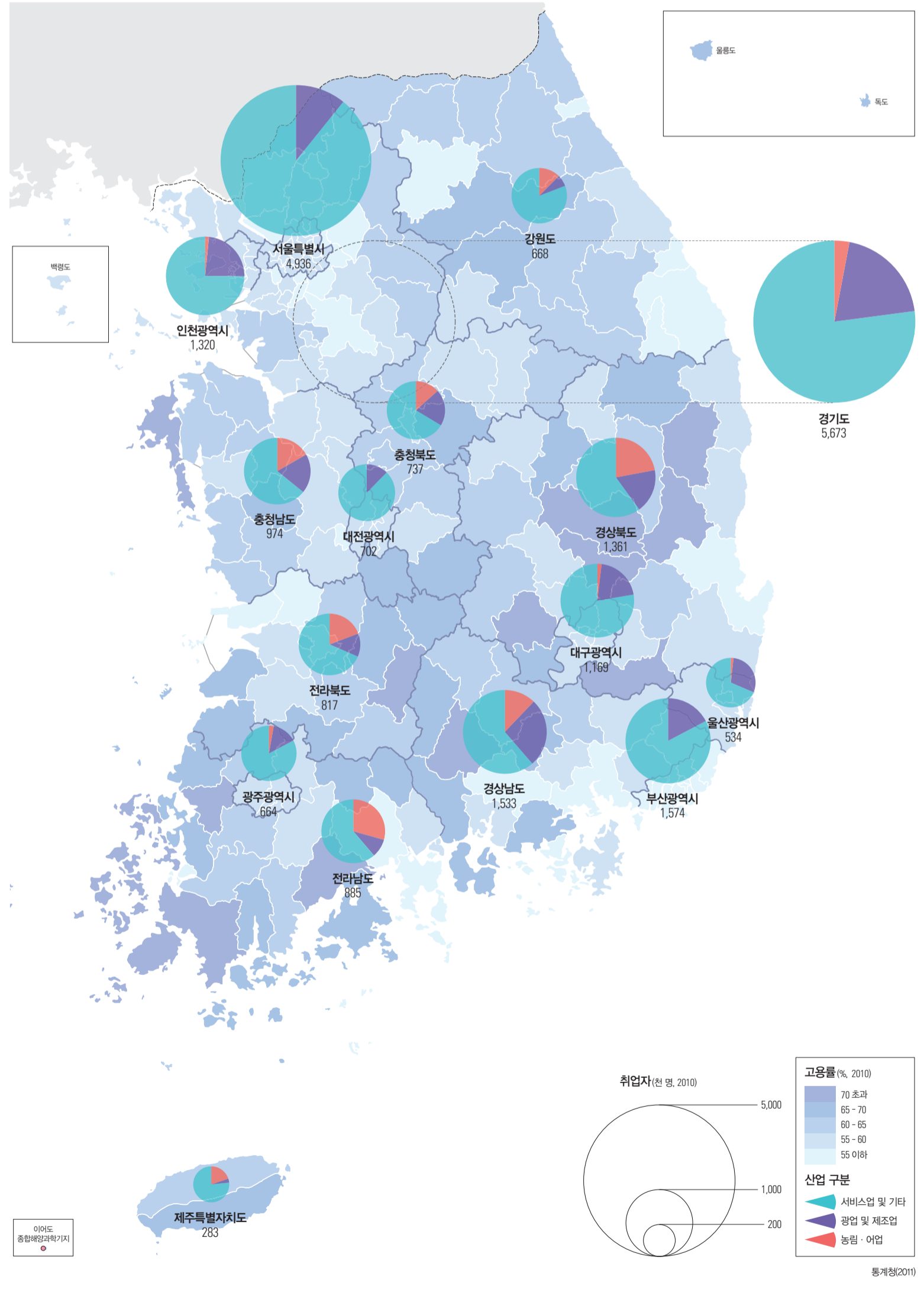
국민 경제 활동은 고용과 소비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고용은 고용률, 실업률, 취업자 구성 등의 지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경제 활동 참가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 활동 인구(취업자 +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경제 활동의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다.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고, 실업률은 경제 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실업률은 구직 활동을 지속하다 취업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스스로 취업을 포기한 사람들을 제외하므로 실제보다 과소 추정되는 문제가 있고, 이에 OECD는 실업률과 함께 고용률을 활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고용률은 대체로 일자리가 많은 도

시 지역에서 오히려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도시 지역의 인구가 많은 영향이 크다. 한편 실업률은 도시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인구 대비 실제 구직 활동을 하는 실업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비도시 지역에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비중이 높더라도 이들이 일할 의향이 없거나 실제 적극적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다.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을 살펴보면 특별시·광역시 지역은 서비스업 비중이 다른 곳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농촌 지역은 농업·어업 취업자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소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가구에서 일상 소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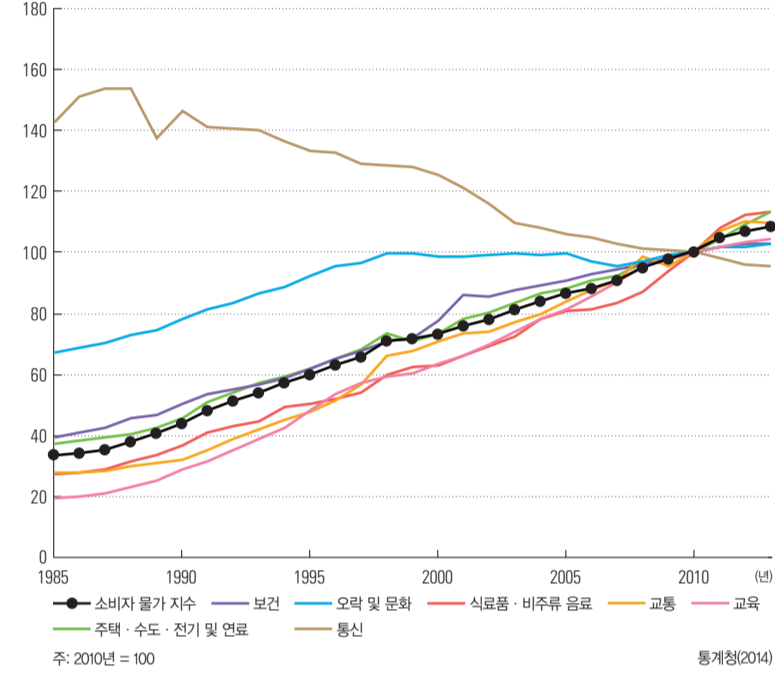
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수로서 기준 시점(2010년)의 지수(100)와 비교하여 계산한 수치이다. 거시 경제 지표로서 가구 부문 전체의 물가 상승에 대한 평균적인 측정값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2010년이 100이라고 할 때 1975년은 11.0, 1985년은 34.2, 1995년은 60.2, 2005년은 86.1의 물가 지수를 나타낸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통신 부문 물가 지수가 1985년 이래 감소하고 있고, 1990년대 후반까지 증가하던 오락 및 문화 부문 물가 지수는 이후 정체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몇 차례 위기가 있었고, 이는 국민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1970년대 초반과

후반 두 차례 석유 파동, 1980년대 후반 노동 쟁의와 임금 상승에 따른 경쟁력 하락, 1990년대 후반 외환 위기,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 위기가 대표적이다. 특히 1997 외환 위기 당시 경제 성장률, 국민 총생산, 수출입, 외환 보유고 등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서 하락을 보인 반면 환율 및 금리의 급격한 상승이 나타났다. 이에 고용률 하락, 실업률 상승 등 국민 경제 활동 전반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공공 및 민간 여러 분야에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통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여 성장세로 돌아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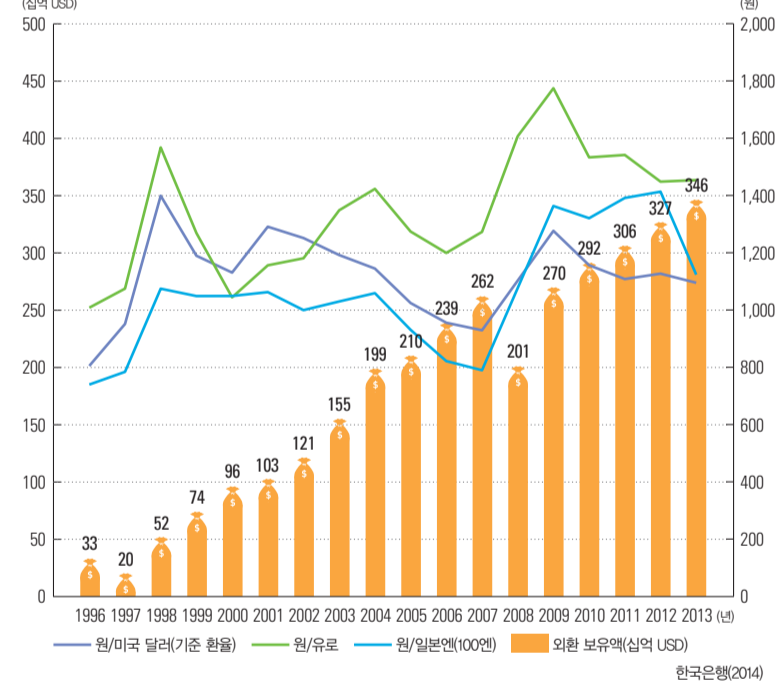
고용률과 산업별 취업자 비중



소비자 물가 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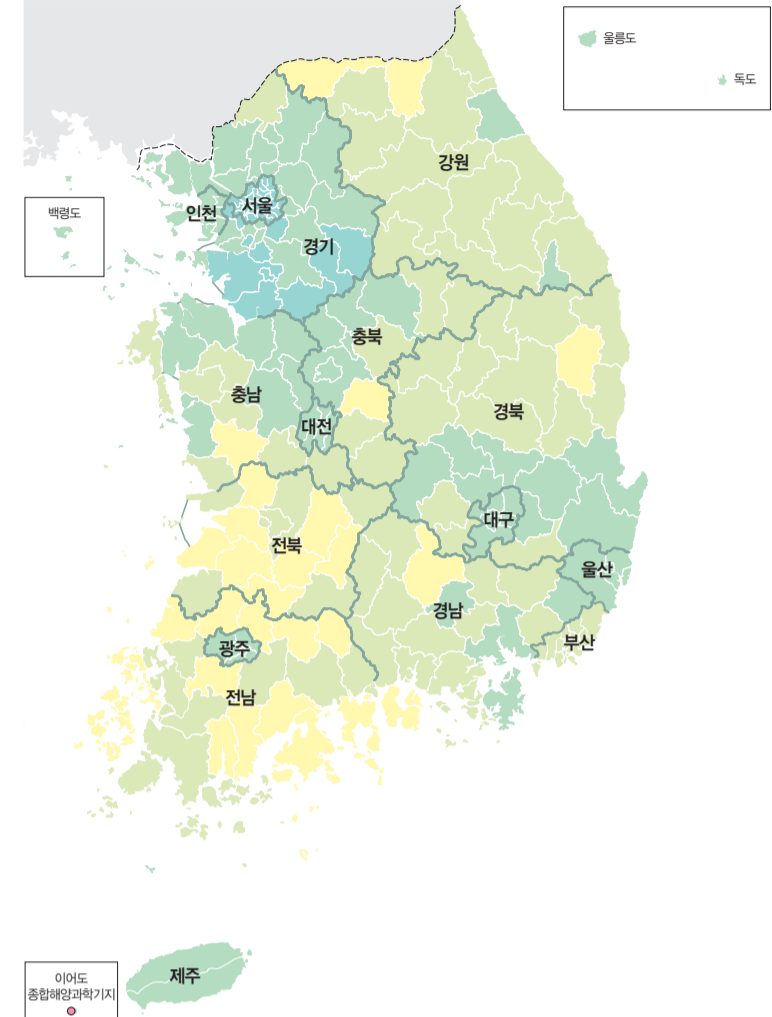
환율과 외환 보유액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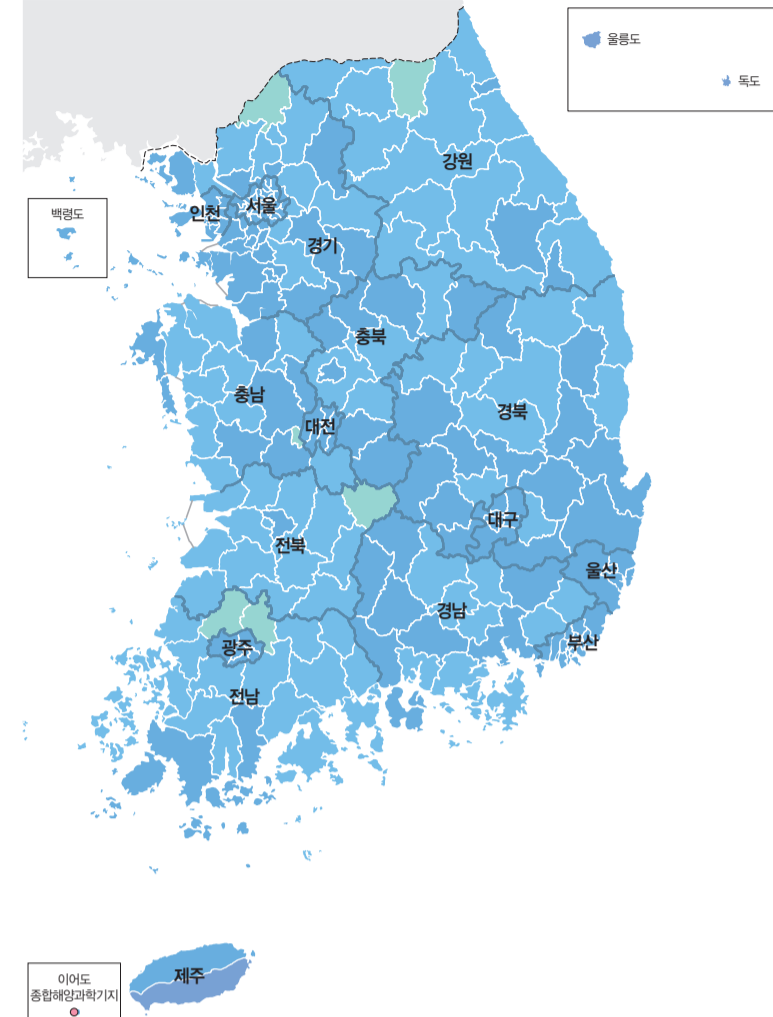
금리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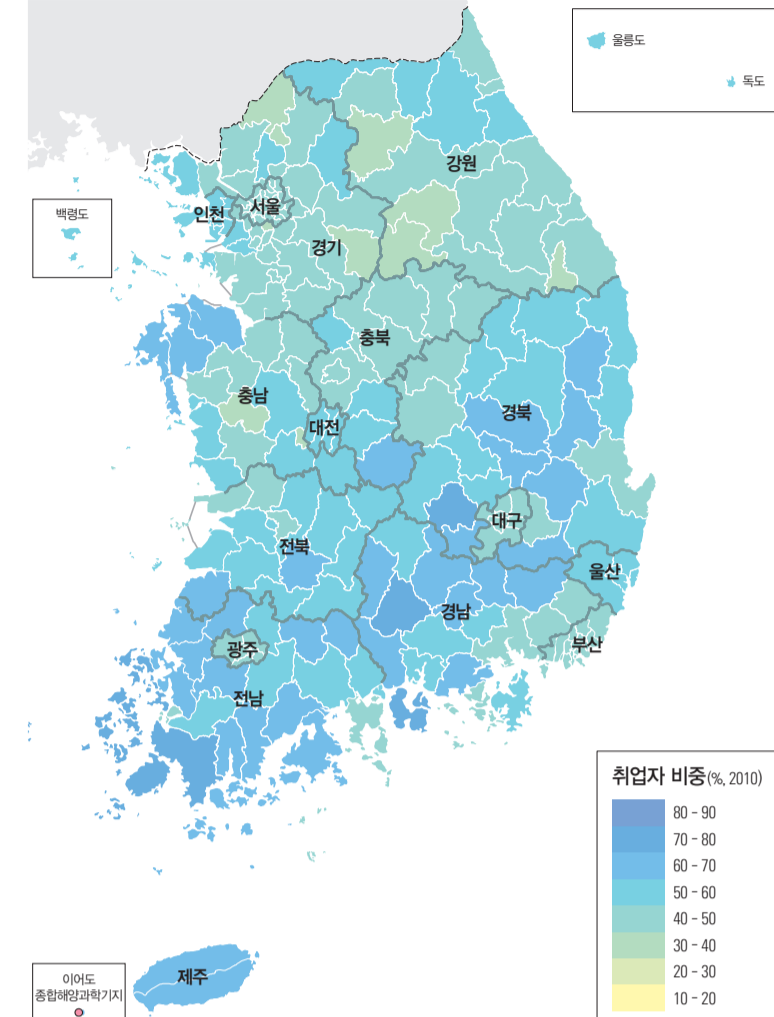
15~29세 취업자 비중



30~49세 취업자 비중



50세 이상 취업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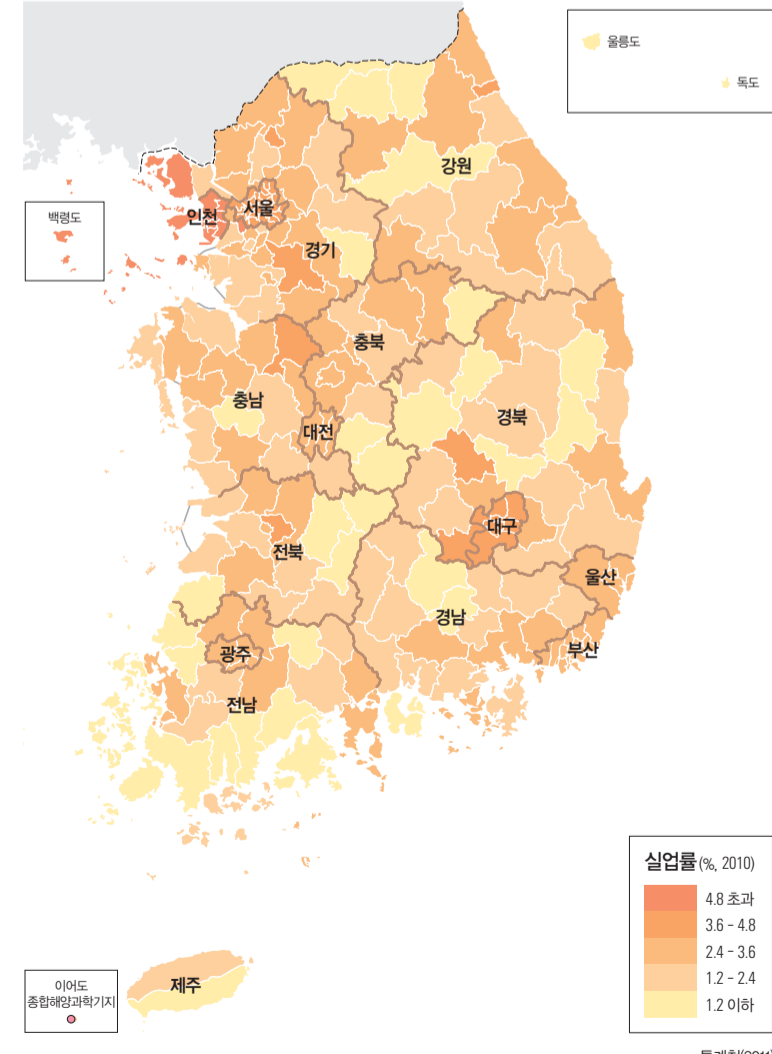
우리나라 노동 시장은 지난 60년 간 큰 변화를 겪었다. 1960년대에는 저숙련의 노동력이 풍부하게 공급되는 상황에서 노동 집약적 산업이 발달했으며, 이에 따라 실업률은 낮아지고 고용률은 높아졌다. 1970년대 이후에는 중화학 공업이 발전하면서 숙련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으며, 1980년대 말 이후에는 정보 통신 산업 등 고부가 가치 산업이 발전하면서 숙련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였다. 또 교육, 경험, 능력 등 개인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었다.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960년대 50% 초반에서 2013년 60% 가까이 증가했다. 남성 고용률은 70~75%

수준에서 등락해 왔던 것에 비해 여성 고용률은 30% 중반에서 최근 50% 가까이 증가하여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를 보여 주고 있다. 여성 노동력은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 노동 집약적 산업 성장에 큰 역할을 했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고졸 또는 대졸 여성이 많아지면서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꾸준히 높아졌다. 그러나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편으로 보육 시설의 확대, 평균 근로 시간 단축,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 등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빠른 속도의 고령화에 따른 연령별 인구 구조 변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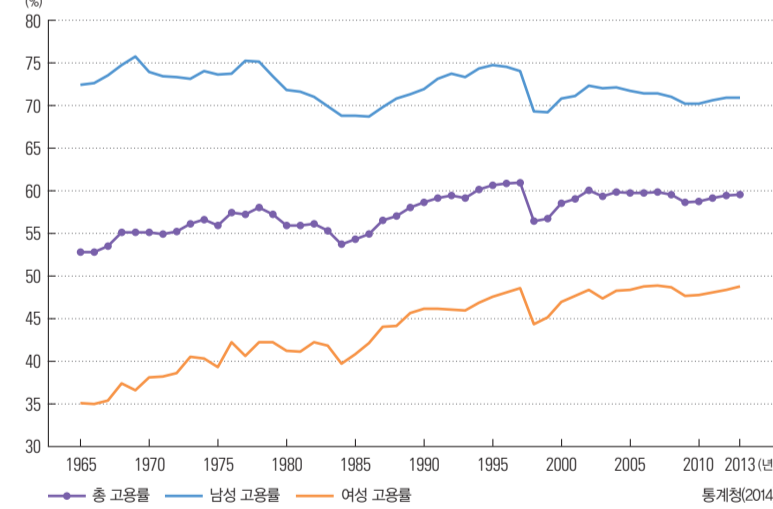
세대 간 부양 및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청년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고, 자녀 세대에겐 부양받지 못하는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노인 일자리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60세 이상 취업자의 월 급여 수준 변화를 보면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임금 근로자 평균보다 높았던 것에 비해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감소하여 남성 노인의 경우 평균의 80% 초·중반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고,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50% 중반 정도에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이다. 연령별 취업자 비중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15~29세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이 서울과 경기 남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반면 순창군, 곡성군 등 남서부 농촌 지역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다. 한편, 50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의 경우에는 남부 도서·산간 지역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경기도 및 강원도 일부 지역이 낮게 나타나서 지역의 인구 및 산업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학력별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대도시 지역에서는 대졸 이상 취업자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데, 전반적인 학력 상승에 따라 고학력 실업 문제 해결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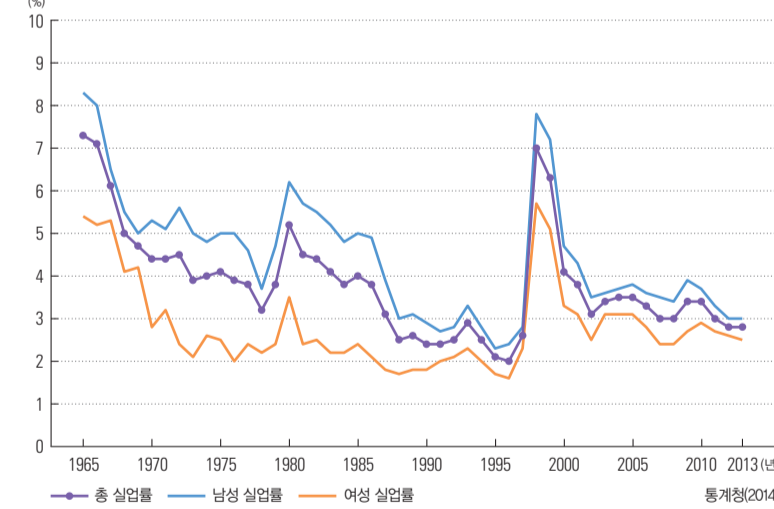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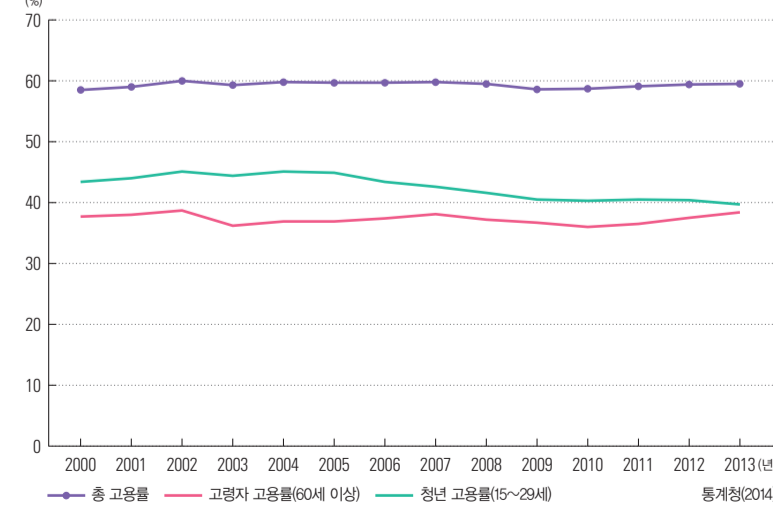
성별 고용률 변화



성별 실업률 변화



연령별 고용률 변화



연령별 실업률 변화

